

‘예방 전쟁’?: 1941년 독소전의 수정주의적 해석에 관한 독일학계의 논쟁

尹 龍 善*

1. 머 리 말
2. 소련침공에 관한 기존의 평가와 해석
3. ‘역사가 논쟁’과 그 이후 나타난 변화
4. 예방전쟁론의 내용
5. 예방전쟁론의 한계
6. 맺 음 말

1. 머 리 말

히틀러가 호언장담했던 ‘천년 제국’은 1943년 초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 제6군의 패배를 기점으로 탄생한지 정확히 10년 만에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41년 6월 22일 시작된 독일의 소련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러시아 침략과 더불어 무너지기 시

작한 나폴레옹과 마찬가지로 독일군의 패배와 함께 제3제국의 붕괴로 귀결되었다.

독일 학계나 여론은 히틀러의 소련 침공 결정과 관련해 게르만 민족의 ‘생활공간(Lebensraum)’을 넓힌다는 인종주의적 제국주의가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본다. ‘우등한 아리아인’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체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넓은 ‘생활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히틀러와 나치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히틀러가 보기에 ‘열등한 인종’인 슬라브족은 지나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 대소전의 인종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이 있었다. 독일 학계와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이러한 관점은 저간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¹⁾ 그러나 1986년 베를린 자유대 역사학과 교수 놀테(Ernst Nolte)가 그동안 유일무이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나치 범죄의 비교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역사가 논쟁’²⁾을 불러일으키자, 보수적인 학자와 언론을 중심으로 소련 침공을 소위 ‘예방전쟁(Präventivkrieg)’으로 보려는 시각이 대두했다.³⁾ 즉, 스탈린이 독일과 서유럽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상태에서, 히틀러는 단지 방어를 목적으로 소련을 선제공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 Schreiber, Gerhard, "Zur Perzeption des Unternehmens 'Barbarossa' in der deutschen Presse", in Ueberschär/Wette, Wolfram(Hrg.), "Unternehmen Barbarossa". *Der deutsche Überfall auf die Sowjetunion 1941. Berichte, Analysen, Dokumente*, Paderborn 1984, p. 27-42.

2) ‘역사가 논쟁’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이 출판되었는데, 필자가 자의적으로 몇 권을 추천한다면 다음과 같다. "Historikerstreit". *Die Dokumentation der Kontroverse um die Einzigartigkeit der nationalsozialistischen Judenvernichtung* München, 1987. Habermas, Jürgen, *Eine Art Schadenabwicklung*, Frankfurt, 1987. Diner, Dan(Hrg.), *Ist der Nationalsozialismus Geschichte? Zu Historisierung und Historikerstreit* Frankfurt, 1987. Geiss, Imanuel(Hrg.), *Die Habermas-Kontroverse. Ein deutscher Streit* Berlin, 1988.

3) 최근에 출판된 예방전쟁론에 관한 개설서로는 Kunde, Kunde, *Der Präventivkrieg. Geschichtliche Entwicklung und gegenwärtige Bedeutung*, Frankfurt, 2007.

* 한성대 인문과학연구원 연구원.

앞서 언급한 바대로, 나치의 소련 침공은 나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존의 지배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예방전쟁론은 놀랍게도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논쟁의 파장이 컸던 것은 소련 침공의 역사적 의미를 보건대 당연한 것이었다. 소련 침공은 무엇보다도 1939년에 체결된 독소불가침조약의 일방적인 파기로 국제법상 독일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다. 게다가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훗날 독일의 분단과 재통일이라는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하기도 했다.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인 페스트는 히틀러 평전에서 소련 침공을 독일 역사에 있어서 ‘자기파멸적 결정’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⁴⁾

이 글에서는 먼저 예방전쟁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견해가 대두하게 된 배경과 이러한 입장이 무엇을 근거로 제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해석의 내용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양자 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글의 두 번째 목적은 소련침공에 대한 재해석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고찰하는데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전쟁론이 갖고 있는 현실·정치적 함의를 평가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해석이 안고 있는 한계와 이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소련침공에 관한 기존의 평가와 해석

1980년대까지 독일 역사학계와 주요 언론에서는 독소전의 성격과 관련해 어떠한 이견도 존재하지 않았다. ‘바바로사 작전’⁵⁾은 예방전이 아니었

4) Fest, Joachim C., *Hitler. Eine Biographie*, Frankfurt, 1973, p. 881.

5) 소련 침공을 의미하는 나치의 군사작전명.

으며, 단지 나치의 팽창주의적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설이었다.⁶⁾ 제3제국은 1939년 모스크바와 불가침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채 안 돼 경제·정치·이데올로기적 이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절멸전쟁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간주되었다. 히틀러는 1940년 여름에 대소전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는데, 이와 관련해 일련의 권위 있는 연구들은 소련침공이 1940년 당시의 전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결정된 것이 결코 아니며 이미 1933년 이전부터 일관되게 추구해온 동방정책, 즉 ‘동유럽에서의 생활공간’ 확보라는 목표를 추구한 것이라고 본다.⁷⁾

일부 학자들은 인종주의적 팽창정책을 강조한다.⁸⁾ 즉, 히틀러는 1925년에 발표한 나의 투쟁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사회진화론⁹⁾에 기초해 ‘우등한 인종’인 아리아인의 자연도태를 막기 위해서는 개체

6) Schreiber, 앞의 책, p. 41.

7)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고전적인 연구들을 들 수 있다. Weinberg, Gerhard L.,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1939-1941*, Leiden, 1954, *The foreign Policy of Hitler's Germany. Vol. 1: Diplomatic Revolution in Europe 1933-1936*, Chicago-London, 1970, *Vol. 2: Starting World War 2, 1937-1939*, Chicago-London, 1980. Trevor-Roper, Hugh R., "Hitler's Kriegsziele", in *Vierteljahrshfte für Zeitgeschichte* 8 (1960) 2, p.121-133. Jäckel, Eberhard, *Hitlers Weltanschauung. Entwurf einer Herrschaft*, Stuttgart, 1981. Kuhn, Axel, *Hitlers außenpolitisches Programm. Entstehung und Entwicklung 1919-1938*, Stuttgart, 1970. Hillgruber, Andreas, *Hitlers Strategie, Politik und Kriegsführung 1940-1941*, München, 1982.

8) *Das Deutsche Reich und der Zweite Weltkrieg, Bd. 4: Der Angriff auf die Sowjetunion*(Beitrag von Jürgen Förster), Stuttgart, 1983. Jäckel, Eberhard, *Hitlers Herrschaft. Vollzug einer Weltanschauung*, Stuttgart, 1986.

9) 사회진화론은 19세기 유럽 인종주의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독일에서는 음악가 바그너(Richard Wagner)의 지원 하에 ‘바이로이트 그룹’이 인종주의와 인종주의적 반유대주의 이론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바그너의 사위였던 영국인 체임벌린(Houston Stewart Chamberlain)은 그룹의 핵심인물이었다. 히틀러는 이들의 이론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으며, 바그너의 열광적인 팬이기도 했다. 절멸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총통이 흠모하던 바그너 음악을 들어야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 작품의 공연이 금지되고 있다.

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보다 넓은 생활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히틀러가 보기에, 서유럽은 일단 공간적으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정화’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반면에 유대인과 슬라브족이 거주하고 있는 동유럽은 광활한 지리적 환경과 인종적 ‘오염’으로 인해 게르만족의 생활공간 확대에 적합한 지역이었다.¹⁰⁾ 히틀러는 집권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는데, 1933년 2월 제국군 장군들 앞에서 행한 취임 연설에서 동유럽 정복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히틀러의 소련 침공은 물론 인종 이데올로기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힐그루버(Andreas Hillgruber)는 히틀러와 나치의 동유럽 정책이라는 맥락 속에서 소련 침공의 동기를 크게 네 가지로 본다.

- 유대인 불세비키와 동유럽 유대인의 절멸
- 제3제국의 식민지와 게르만의 생활공간 개척
- 독일의 슬라브족 지배
-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확보: 동유럽을 손에 넣음으로써 연합국에 의한 전방위 포위를 피하고, 방대한 영토와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소련을 근거로 먼저 유럽 장악을, 다음은 ‘세계 지배’를 위한 토대 구축¹¹⁾

공격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공격상태에 돌입한 적을 한 발 앞서 먼저 공격하는 것을 예방전쟁으로 본다면, 1941년 독일의 소련 침공은 예방 전쟁이라 할 수 없다고 힐그루버는 결론 내린다.¹²⁾

나치 독일의 소련 침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1940년 여름의 군사적 상황과 소련의 공격적인 대외 정책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는 주장¹³⁾은 1960~70년대에 이미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히틀러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서들로 인해 설득력이 없으므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단지 소수의 학자들만이 이러한 가설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¹⁴⁾

그러나 학계 외부의 상황은 반드시 이와 같지 않았다. 대소전은 군사전략상의 문제가 아닌 나치 이데올로기의 문제였다는 주장¹⁵⁾이 여러 사료에 근거해 정설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의 위협을 강조하는 주장은 극우주의 진영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극우주의 인사들은 1960~80년대에 집요하게 소련 침공을 불세비즘으로부터 유럽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쟁으로 봄으로써 유대인과 슬라브족에 대한 절멸전쟁이었다는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데에 있었다. 히틀러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책들은¹⁶⁾ 대중적으로도 커다란 성공을 거두면서 대부분 높은 판매부수를 기록했다. 심지어 서독 연방군이 발간하는 학술 잡지의 독자란에도 예방전쟁론이 버젓이 오른 적도 있었다.¹⁷⁾ 당시의 이러한 현상은 냉

13) Fabry, Philipp W., *Der Hitler-Stalin-Pakt 1939-1941. Ein Beitrag zur Methode sowjetischer Außenpolitik*, Darmstadt, 1962, *Die Sowjetunion und das Dritte Reich. Eine dokumentierte Geschichte der deutsch-russischen Beziehungen von 1933 bis 1941*, Stuttgart, 1971. 이와 반대되는 입장으로는 Erickson, John, “Kriegsvorbereitungen der Sowjetunion 1940/41”, in Hillgruber, Andreas(Hrg.), *Probleme des Zweiten Weltkrieges*, Köln-Berlin, 1976, pp. 75-99.

14) 소련 침공을 전략으로 보는 연구로는 Stegemann, Bernd, “Der Entschluß zum Unternehmen Barbarossa. Strategie oder Ideologie?”, in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33(1982)pp.205-213. Schustereit, Hartmut, *Vabanque. Hitlers Angriff auf die Sowjetunion 1941 als Versuch, durch den Sieg im Osten den Westen zu bezwingen* Herford-Bonn, 1988.

15) Hillgruber, Andreas, “Noch einmal : Hitlers Wendung gegen die Sowjetunion 1940”, in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33(1982), pp. 214-226.

16) Helmdach, Erich, *Überfall? Der sowjetisch-deutsche Aufmarsch 1941*, Neckargemünd, 1976, 7. Aufl., Berg am See, 1983. Klüver, Max, *Präventivschlag 1941. Zur Vorgeschichte des Rindfeldzuges*, Leoni, 1986.

10) Hitler, Adolf, *Mein Kampf*, München, 1925.

11) Hillgruber, 앞의 책, p. 519 이하.

12) 위의 책, p. 533.

전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는데, 반공주의 진영은 미국이 등장하기 전 유럽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낸 것은 히틀러의 소련 침공 덕분이었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공산주의는 냉전시대에 모든 악 위에 군림하는 최고 악이었던 것이다.

3. ‘역사가 논쟁’과 그 이후 나타난 변화

1986년 6월 6일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에는 나치과거에 관한 매우 예민한 주제를 다룬 글이 한 편 게재되었다.¹⁸⁾ 당시 베를린 자유대 역사학과 교수였던 놀테는 ‘사라지려 하지 않는 과거’라는 제목의 이 글을 강연회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썼으나,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라 발표가 취소되자 글을 신문에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이러하다. 즉 나치즘은 볼셰비즘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아우슈비츠는 수용소 군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무시된 채 지금까지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이 독일적 현상으로 간주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승전국의 관점에서 역사가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위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사서술’이 필요하다. 이상이 놀테가 투고한 글의 요지이다.

독일의 지성으로 추앙받는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이례적으로 놀테를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¹⁹⁾ 하버마스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역사논쟁에 성급하게 뛰어들 이유는 나치과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독일사회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

17) *Europäische Wehrkunde/Wehrwissenschaftliche Rundschau* 34(1985), p.306, 406, 520 이하.
18) Nolte, Ernst, "Vergangenheit, die nicht vergehen will",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6. 6. 1986.
19) Habermas, Jürgen, "Eine Art Schadenabwicklung", in *DIE ZEIT*, 11. 6. 1986.

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가 보기에, 오늘날 독일사회는 제3제국의 안티테제로 출발했으며, 따라서 나치과거는 현 체제가 왜 계속해서 정당성을 갖고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이다. 나치 이후 독일의 정체성은 서구의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놀테가 말하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사’란 허구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과거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독일의 부담을 덜어버리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논쟁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간의 전면적인 공방으로 발전했으며, 독일사회로 하여금 나치과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역사가 논쟁’은 제2차 세계대전사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독소전의 평가에도 영향을 끼쳤다. 예방전쟁론은 과거에 극우주의 혹은 반공주의 진영에서나 관심을 보였던 소수의 견해에 불과했으나, ‘역사가 논쟁’이 벌어진 1986년부터는 보수적인 학자나 언론인들 사이에서 과거와 달리 무조건 배척되지 않았다. 독일 중심적인 역사서술에 관심을 갖고 있던 보수 학자들은 대소전의 배경과 성격을 달리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놀테가 아우슈비츠와 수용소 군도의 ‘인과관계(kausaler Nexus)’를 주장하자, 홀로코스트는 이제 볼셰비즘에 대한 대응이자 심리적 위기감에서 비롯된 일종의 ‘강제 상태(Zwangslage)’로 인식되었다. 이를 테면 볼셰비즘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아우슈비츠와 같은 극단적인 폭력을 낳았다는 것이다.²⁰⁾ 게다가 놀테는 히틀러가 개전과 함께 유대인을 포로로 취급하여 수용소에 수감한 행위가 정당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여기서 세계 유대인협회 의장이었던 바이트만(Chaim Weizmann)이 1939년 9월 런던에서 했던 연설을 지적했는데, 바이트만은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전 세계의 유대인은 연합국 측에 서서 히틀러 독일에 대항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놀테는 어이없게도 이를 선전포고로 규정한다.²¹⁾

20) Nolte, Ernst, "Vergangenheit, die nicht vergehen will",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6. 6. 1986.

앞서 언급한 바대로, ‘역사가 논쟁’이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역사 서술이 장차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 역시 역사 재해석의 내용이 아닌 목적을 주로 비판했다. 예방전쟁론과 관련해서도 하버마스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 대소전은 독일민족의 생존을 위한 방어 전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유대인 학살과 소련 침공의 상관관계였다. 괴링은 1941년 7월 31일 친위대 부장관 하이드리히에게 문서로 하달한 지시에서 ‘유럽의 독일 점령지역에서 유대인 문제의 총체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괴링이 지시를 내렸던 1941년 여름은 대소전 초기로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동쪽으로 진군해 승리를 확신하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괴링은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을 결정했던 베를린 반제 회의를 소집하도록 역시 하이드리히에게 지시했다. 회의는 원래 1941년 말에 소집될 예정이었으나 12월 모스크바 근교에서 독일군의 진격이 주춤하자 1942년 1월로 연기됐다.²¹⁾

대소전 초기 동부전선의 낙관적인 전황은 유대인 정책의 변화를 초래했다. 그때까지 추진되었던 유대인 박해(법적 차별, 재산의 몰수, 각종 시민권의 박탈 등)는 1941년 여름이 지나면서 유럽 유대인의 물리적인 절멸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점차 농후해졌다. 9월부터 유대인과 소련군 포로의 학살을 위해 사이클론 B가 사용되기 시작했다.²²⁾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21) Nolte, Ernst, "Between Myth and Revisionism?", in H. W. Koch(ed.), *Aspects of the Third Reich* London, 1985, pp. 17-38. p. 27 이하.

22) Ueberschär, Gerd R., "Das Scheitern des Unternehmens 'Barbarossa'. Der deutsch-sowjetische Krieg vom Überfall bis zur Wende vor Moskau im Winter 1941/42, in Ueberschär/Wette (Hrg.), 앞의 책, p. 149에서 재인용.

23) Jäckel, Eberhard/Rohwer, Jürgen(Hrg.), *Der Mord an den Juden im Zweiten*

온 유럽의 민족의 재구성이라는 인종주의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대소전을 통해 마침내 히틀러에게 찾아왔다. 유럽 전역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강제 이송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결코 긴급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으며, 동유럽 정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장기적인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소련 침공과 유대인 학살의 상관관계는 1941년 여름 점령 동유럽지역 장관으로 비공식적으로 임명된 인종주의 이론가 로젠베르크(Alfred Rosenberg)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1941년 11월 18일 소집된 나치 공보담당 관련자들과의 비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유럽의 여러 민족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은 동유럽에 달렸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유대인 문제입니다. 동유럽에는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으며, 이 문제는 유럽의 모든 유대인을 생물학적으로 근절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대인 문제는 최후의 유대인이 독일 영토로 떠남으로써 해결되며, 유럽의 경우에는 우랄산맥에 이르기까지 유럽 대륙에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해결됩니다.”²⁵⁾ 이처럼 대소전이 유대인 학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상, 소련 침공을 직접 수행한 독일군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홀로코스트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 또한 커진다.²⁶⁾

Weltkrieg. Entschlußbildung und Verwirklichung, Stuttgart, 1985.

24) Hillgruber, Andreas, "Der Entschluß zur Ermordung der europäischen Juden", in Jäckel, Eberhard/Rohwer, Jürgen(Hrg.), *Kriegswende. Dezember 1941*, Koblenz, 1984, p. 227.

25) Tagebuch von Alfred Rosenberg. Leserbrief von Robert M. W. Kempner, in *Frankfurter Rundschau*, 4. 7. 1987, p. 2에서 재인용.

26) Meyer, Arno, *Der Krieg als Kreuzzug. Das Deutsche Reich, Hitlers Wehrmacht und die "Endlösung"*, Reinbek, 1989.

4. 예방전쟁론의 내용

아우슈비츠와 수용소 군도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면, 유대인 학살과 독일의 소련 침공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이러한 재구성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막대하다. 즉, 소련과 스탈린이 전쟁의 원인제공자로 규정되면, 나치 독일이 점령한 소련 영토에서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한 기억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진다. 아울러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동유럽과 소련 침공을 불세비즘이라는 ‘아시아적 야만’로부터 유럽을 방어해야 하는 ‘강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동적 행위로 뒤집어 보면, 전쟁에 대한 역사적 부담을 한 번에 덜어버릴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보수 언론들은 ‘예방 전쟁’이라는 나치의 선전을 부활시키고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예방전쟁론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단순히 ‘역사가 논쟁’의 영향만은 아니었다. 소수의 연구자들은 꾸준히 관련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예방전쟁론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일깨우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토피취(Ernst Topitsch)는 1985년에 발표된 자신의 저서²⁷⁾에서 스탈린의 전략을 새롭게 해석해 사회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어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군사사가인 호프만(Joachim Hoffmann)과 소련군 총사령부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소련 시절 해외로 망명한 수보로프(Виктор Суворов)는 소련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군사적 전술을 구사했음을 보여주는 군사기술적 증거들을 제시했다.²⁸⁾

급진 반공주의 성향의 토피취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정치적 본질에 있어서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소련의 공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그의 주장을 보고 있노라면, 제2차 세계대전은 오로지 소련을 위해 준비된 이벤트였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독일과 일본은 전쟁을 통해 결국 소련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군사적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소련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히틀러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것이다.²⁹⁾

다른 연구들은 소련의 공격 의도를 강조한다. 수보로프는 1941년 여름 스탈린 역시 독일을 침략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호프만은 스탈린이 어차피 1942년에 독일침공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1941년 독일의 소련침공이 스탈린에게는 공격이 아니라 기다리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말하자면, 바바로사 작전은 소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기보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라고 본다.³⁰⁾

토피취나 수보로프의 주장은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로 대중적인 인기와 달리 학문적으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수보로프의 주장은 그가 독일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보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986년 여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는 수보로프의 저서를 소개하는 서평이 게재되었다. ‘독재자들의 전쟁’이라는 서평을 쓴 길레센(Günther Gillessen)은 글에서 1941년 전쟁은 독일이 소련에 대해 가한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맞부딪힌 것이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독일이 소련에 대해 느끼고 있던 일방적인 부담감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³¹⁾

27) Topitsch, Ernst, *Stalins Krieg. Die sowjetische Langzeitstrategie gegen den Westen als rationale Machtpolitik* München, 1985.

28) Hoffmann, Joachim, "Die Sowjetunion bis zum Vorabend des deutschen Angriffs", in *Das Deutsche Reich*, Bd. 4, pp. 38-97, "Die Kriegsführung aus der Sicht der Sowjetunion", 같은 책, pp. 713-809. Suvorov, Viktor, "Who was Planning to Attack Whom in June 1941, Hitler or Stalin?", in *Rusi.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130(1985) 50-55, "Yes, Stalin

was Planning to Attack Hitler in June 1941, in *Rusi.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131(1986) 73 이하.

29) Topitsch, 앞의 책, p. 140 이하.

30) Hoffmann, Joachim, "Stalin wollte den Krieg,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 10. 1986, p. 8.

31) Gillessen, Günther, "Der Krieg der Diktatoren. Wollte Stalin im Sommer 1941 das

토피취의 주장은 공산주의 혐오에서 비롯된 공격이었던 반면, 길레센의 글에서는 소련 침공의 역사적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짙게 드러난다. 소련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치가 고안해낸 ‘아시아적 야만’이라는 적의 이미지를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대소전을 다른 관점에서 보자는 주장이었다. 길레센의 기고문은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글에 대한 입장은 극과 극으로 나누어졌다.³²⁾ 방송인 로시(Lea Rosh)는 현대사의 재해석 움직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대사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더 이상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독일의 소련 침공이 순수한 방어적 조치였다는 사실을 이러한 인사들로부터 듣게 될 것이다. 히틀러는 단지 스탈린보다 한 발 앞섰을 뿐이다. 이 점은 이미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변호인단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사람을 억박지르거나 하는 케케묵은 이야기는 다시 끄집어 내지 않았으면 한다.”³³⁾

토피취 역시 잘못은 히틀러에게만 있지 않다는 양비론에 가세했다. 그는 1987년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히틀러만 동유럽에서 ‘생활공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스탈린 역시 독일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중언부언했다.³⁴⁾ 게다가 흥미로운 사실은 토피취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중 극히 일부만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 논객인 칼텐브루너(Gerd-Klaus Kaltenbrunner)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그 역시 역사학계의 중요한 연구결과를 무시한 채 대소전이 ‘예방전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학문적으로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고 본다.³⁵⁾

또한 토피취는 논거 제시에 있어서도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언론에서는 1941년이나 1942년 스탈린이 독일을 침략할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글에서는 ‘심리학적 전쟁수행’이나 ‘심리·정치적 측면’ 등이 주제였다.³⁶⁾ 여기에서는 초점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테면 스탈린의 의도에 대한 추측에서 히틀러의 심리적 세계로 관심사가 이동한다. 대부분이 추측이며,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인종주의나 제국주의 같은 나치즘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언급은 토피취의 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히틀러는 가해자가 아니라 단지 스탈린의 공격적인 정책에 반응했을 뿐이며 동유럽에서의 ‘생활공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관에 박힌 주장이 반복된다. 이를 테면 ‘정당한 선제공격’이 되는 독일의 소련 침공은 히틀러와 나치를 불세비즘으로부터 서구의 문명을 지켜낸 구원자로 추앙한다.

토피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다소 선동적인 주장에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연구결과는 의도적으로 배척하거나 무시되기 일쑤이다. 그로 인해 심리적 측면을 고찰한다고 내세우면서도 히틀러의 내면세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괴벨스의 일기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이유인 즉은 일기가 소련 침공이 히틀러의 정치이념이나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련 침공은 본질적으로 히틀러의 팽창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역사학자들을 ‘모스크바의 친구들’로 매도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물론 이

Deutsche Reich angreifen?”,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 8. 1986.

32) 이에 관해서는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86년 9~12월 기간의 독자 투고란을 참고.

33) Rosh, Lea, “Bald sagen sie, Hitler kam Stalin nur zuvor”, in *Vorwärts*, 17. 1. 1987.

34) Topitsch, Ernst, “Perfekter Völkermord”, in *Rheinischer Merkur/Christ und Welt* 3, 16. 1. 1987, p. 20.

35) Kaltenbrunner, Gerd-Klaus, “Angst vor einem Raubtier, das schon tot ist”, in *Rheinischer Merkur/Christ und Welt* 51, 12. 12. 1986, p. 19.

36) Topitsch, Ernst, “Psychologische Kregsführung-einst und heute”, in *Allgemeine Schweizerische Märitzeitschrift* 152(1986), pp. 415-420, “Die deutsche Neurose. Pseudo-Moral als Waffe psychologischer Kriegsführung”, in *Criticon* 100-101/1987, pp. 67-72. Stegemann, Bernd, “Geschichte und Politik. Zur Diskussion über den deutschen Angriff auf die Sowjetunion 1941”, in *Beiträge zur Konfliktforschung. Psycho-politische Aspekte*(1987), pp. 73-97.

처럼 근거 없는 비난은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나 청중을 발견할 수 있다.

극우주의는 역사 정리에 있어서 이성적인 논의보다 감정적인 공격에 익숙해 있는데,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민족의 해충(Volksschädling)’이나 ‘집안 욕하는 자(Nestbeschmutzer)’같은 비난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일반적으로 극우주의 출판물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³⁷⁾ 최근에는 정치계의 우익 인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³⁸⁾ 그밖에 재향군인회나 동부전선 참전용사들, 극우정당인 NPD 의장을 지낸 바 있는 타덴(Adolf von Thadden) 등과 같은 그룹이나 개인은 극우 잡지 『Nation und Europa』이나 기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방전쟁론을 확산시키고 있다.³⁹⁾

5. 예방전쟁론의 한계

예방전쟁론과 같은 수정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보수 역사학자인 슈튀르머(Michael Stürmer)가 강조하는 과거를 해석하고 개념화하려는 경향의 대두이다.⁴⁰⁾ 이러한 입장에서는 역사서술이 정치적으로 자유

37) “Deutsche Geschichte ‘amtlich’ gefälscht. Das Militärgeschichtliche Forschungsamt der Bundeswehr macht es möglich”, in *Deutsche Wochen-Zeitung* 4/1985.

38) Albisser, Jörg, “Ein anderer Historikerstreit. Turbulenzen im Militärgeschichtlichen Forschungsamt (Freiburg I. Br.)”, in *Criticon* 100-101/1987, pp. 120-123.

39) “Die Schuld am Rußlandfeldzug. Ein neues Geschichtsbild entsteht”, in *Deutsche National-Zeitung* 8/1987, p. 3. Pemlier, Georg, “So kam es zum Rußland-Feldzug. War es wirklich ein Überfall?”, in *Deutsche National-Zeitung* 23/1987, p. 5. Thadden, Adolf von, “Der Rußlandfeldzug-Überfall oder Präventivschlag?”, in *Nation und Europa* 3/1987, pp. 32-37.

40) Stürmer, Michael, “Geschichte in einem geschichtslosen Land”,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5. 4. 1986, “Such nach der verlorenen Erinnerung. Es geht um innere Kontinuität und außenpolitische Berechenbarkeit”, in *Das Parlament* 20/21(17./24. 5. 1986), p. 1.

로워야 하면, 또한 이를 통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정주의가 보기에, 기존의 역사서술은 승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독일의 책임만이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다른 측면은 간과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쿰 대학 정치학과 빌름스(Bernhard Willms) 교수 같은 신보수주의자들은 반파시즘을 ‘정체성의 파괴’와 동의어로 규정한다.⁴¹⁾ 이들은 독소전에 대한 히틀러와 독일의 책임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반파시스트’로 규정하며, 독소불가침조약의 일방적인 파기라든가 유대인 박해와 학살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집단적 자기증오’ 혹은 ‘민족사관의 해체’라고 비난한다.

학문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수정주의를 포함한 모든 입장이 자유롭게 개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작업 또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대사에 관한 논의는 사건의 동시대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당파성이나 현실적 이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논의의 무제한적 자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논의는 학문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이를 넘어선다. 예를 들어 예방전쟁론은 나치의 팽창주의적 외교정책과 관련해 정부나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대외정책이나 여론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방전쟁론이 과거사 논의에서 하나의 주제로서 권위를 인정받을 경우, ‘바바로사 작전’에 관한 진지한 학문적 연구와 침공을 옹호하고 책임을 털어버리려는 우익의 주장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 자체가 흐려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독일 학계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신속한 반응을 보였는데, 1987년 3월 에센에서 개최된 히틀러의 소련 침공을 평가하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예방전쟁론이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⁴²⁾

41) Klönne, Arno, “Bundestagswahl. Historiker-Debatte und ‘Kulturrevolution von rechts’”, in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32(1987) 3, pp. 285-296.

42) Besymenski, Lew, “Kathedr-Revanchismus. Gedanken über die Ursprünge einer

순수한 학문적 연구와 정치화된 우익의 해석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 허물기의 위험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히틀러의 전쟁 의도에서 벗어나 스탈린에게로 향하는 초점의 이동이나, 과거 나치의 선전이었던 ‘불세비즘의 위협에 대한 대응’ 같은 주장의 무조건적 수용 등이 예방전쟁론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도 이미 존재했지만 당시에는 극히 일부에서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급진적이라고 간주되던 주장이 역사 가논쟁 이후 보수언론을 통해 확산됨으로써 보수진영과 극우진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보수주의와 극우주의의 거리두기는 갈수록 ‘유연’해지고 있는데,⁴³⁾ 이러한 위험성은 보수진영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길레센은 격렬한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첫 번째 기고문을 정리하는 두 번째 기고문에서 소련의 침략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방전쟁론이 나치의 프로파간다를 부활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⁴⁴⁾

그러나 모든 예방전쟁론자들이 길레센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방전쟁론은 길레센의 정리에도 불구하고 극우주의와의 모호성이라든가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새로운 해석이 극우 진영의 각종 출판물에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준다. 클뢰네(Arno Klönne)는 과거에 급진적으로 간주되거나 나치즘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터부시되던 주장들이 점차 공론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반 현상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역사를 평가하는 판단기준이 점차 우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⁵⁾ 수

정주의적 역사해석은 이미 ‘역사 파시즘의 철학적 전위(philosophische Vorräume des historischen Faschismus)’ 역할을 한다는 경고가 역사학계에서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주의는 이렇다할만한 연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치즘과 불세비즘 간의 ‘내전’을 주장했던 놀테는 이 전쟁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충돌이라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⁴⁶⁾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증거나 논거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는 수정주의 입장에서 볼 때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침공이 결코 인종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놀테는 머지않아 예방전쟁론을 둘러싼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벤츠(Wigbert Benz)는 유대인 학살도 예방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인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하면서 ‘바바로사 작전’에 대한 놀테의 해석은 어떠한 사료를 통해서도 증명된 바 없다고 규정지었다.⁴⁷⁾

과학의 세계에서 기존의 학설이나 주장을 극복하는 것은 학자의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이다. 문제는 극복하는 방법인데, 새로운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논리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련에 대한 독일의 선제공격론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힐그루버는 이미 1982년에 명백한 사료를 기초로 수정주의적 해석에 반박했으며, 수정주의는 지난 20년 이상에 걸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⁴⁸⁾

수정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일단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졌다. 먼저 소련

politisch-psychologischen Kampagne”, in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32 (1987) 3, pp. 273-284.

43) Mommsen, Hans, “Suche nach der ‘verlorenen Geschichte’? Bemerkungen zum historischen Selbstverständnis der Bundesrepublik”, in *Merkur* 40(1986) 10, p. 867.

44) Gillessen, Günther, “Der Krieg der Diktatoren. Ein erstes Resümee der Debatte über Hitlers Angriff im Osten”,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5. 2. 1987, p. 33.

45) Klönne, 앞의 글, p. 288.

46) Nolte, Ernst, *Der europäische Bürgerkrieg 1917-1945. Nationalsozialismus und Bolschewismus* Frankfurt-Berlin, 1987, p. 460 이하.

47) Benz, Wigbert, “Präventiver Völkermord? Zur Kontroverse um den Charakter des deutschen Vernichtungskrieges gegen die Sowjetunion”, in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33(1988) 10, pp. 1215-1227.

48) Hillgruber, “Noch einmal ...”, p. 214, 224.

침공이 예방 조치였다는 1940년대 나치의 선전을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히틀러의 동유럽 정책이 인종주의 이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는 기존의 학설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대소전을 절멸전쟁으로 보는 벤츠의 연구와 1940/41년 소련의 대외정책에 관한 피에트로프(Bianka Pietrow)의 연구는 토피취, 호프만, 수보로프 등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제시했다.⁴⁹⁾ 피에트로프의 논문에 따르면, 소련 대외정책이 적어도 1941년까지 강대국의 팽창야욕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의 방어가 언제나 정책의 핵심이었다. 호프만이 스탈린의 공격 의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1941년 5월 5일 군사아카데미에서 행한 스탈린의 연설문은 내용이 상이한 여러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스탈린의 의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말한 내용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피에트로프는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있다.⁵⁰⁾ 스탈린이 당시 연설에서 공격의지를 표현했는지, 아니면 1941년 또는 1942년에 있을 공격에 대비한 방어태세의 구축을 강조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히틀러의 세계관과 정치적 목표에 관한 치텔만(Rainer Zitelmann)과 예켈의 연구는 동유럽에서 게르만족의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히틀러의 일관된 동유럽 정책의 목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아울러 치텔만은 히틀러의 동유럽 정책에 있어서 특히 경제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⁵¹⁾

49) Benz, Wigbert, *Der Rußlandfeldzug des Dritten Reiches. Ursachen, Ziele, Wirkungen*. Frankfurt, 1986. Pietrow, Bianka, “Deutschland im Juni 1941—ein Opfer sowjetischer Aggression?”,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14(1987), pp. 116-135.

50) Pietrow-Ennker, Bianka(Hrsg.), *Präventivkrieg? Der deutsche Angriff auf die Sowjetunion* Frankfurt, 2000, p. 24.

51) Zitelmann, Rainer, *Hitler. Selbstverständnis eines Revolutionärs*, Hamburg-Leamington Spa-New York, 1987, p. 463, “Zur Begründung des ‘Lebensraum’-Motivs in Hitlers Weltanschauung”, in Michalka, Wolfgang(Hrg.), *Der Zweite Weltkrieg. Analysen, Grundzüge, Forschungsbilanz*, München, 1989, pp. 551-567. Jäckel, Eberhad, *Hitlers Herrschaft*.

이에 대해 수보로프는 1989년에 출판된 후 유럽 각국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자신의 저서에서 스탈린은 히틀러로 하여금 선제공격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히틀러는 스탈린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⁵²⁾ 그러나 학계에서는 곧이어 그의 주장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뒤따랐다.⁵³⁾ 토피취 역시 1993년 출판된 『스탈린의 전쟁 Stalins Krieg』 개정증보판에서 여전히 증명되지 않은 막연한 추측과 자의적인 해석을 반복했다. 이처럼 증언부연하는 연구와 달리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볼코고노프(Дмитрий Волкогонов)는 스탈린 전기에서 소련 군부가 히틀러의 소련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스탈린에게 선제공격을 하도록 건의했지만 스탈린은 히틀러가 공격하리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군부의 건의를 묵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토피취는 이미 4년 전에 발표된 볼코고노프의 연구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신념이 되어버린 것 같은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⁵⁴⁾

예방전쟁론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즉, 소련의 공격의도에 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반면, 당시 독일 정치권과 군부가 소련의 공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위협에 대비

52) Suworow, Viktor, *Der Eisbrecher. Hitler in Stalins Kalkül*, Stuttgart, 1989.

53) Bonwetsch, Bernd, “Was wollte Stalin am 22. Juni 1941? Bemerkungen zum ‘Kurzen Lehrgang’ von Viktor Suworow”, in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34(1989) 6, pp. 687-695. 비판적 서평으로는 Müller, Rolf-Dieter, 1999. *Zeitschrift für Sozialgeschichte des 20. und 21. Jahrhunderts* 4(1989) pp. 148-151. Malanowski, Wolfgang, “Rücken an Rücken oder Brust an Brust?”, in *Der Spiegel* 10/1989, pp. 148-164. Fischer, Alexander, “Unternehmen ‘Barbarossa’”, in *Das Parlament* 8, 16. 2. 1990, p. 13. Gorodetsky, Gabriel, “Stalin und Hitlers Angriff auf die Sowjetunion. Eine Auseinandersetzung mit der Legende vom deutschen Präventivschlag”, in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37(1989) 4, pp. 645-672.

54) Wolkogonow, Dmitri, *Stalin. Triumph und Tragödie. Ein politisches Porträt*, Düsseldorf, 1989.

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논증해놓은 상태라, 예방전쟁론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스탈린의 정책에 대한 공허한 추측만을 늘어놓으며, 소련침공의 기저에 깔려있는 나치즘과 히틀러의 인종주의적 의지를 과소평가하거나 외면한다.

소련침공을 ‘예방전쟁’으로 둔갑시킨 것은 선전장관 괴벨스의 아이디어로 히틀러는 단지 나중에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을 목적으로 확산시키도록 명령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소련의 공격을 예상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경우에 따라 일부 학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근거가 없거나 빈약한 가설로 학계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진지하게 논의해볼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이 되던 1995년에 다양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지만, 예방전쟁론은 어느 곳에서도 주요 테마가 되지 못했다. 학계의 관심사는 여전히 독소전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환경, 유대인 학살과 전쟁의 연관성 등이었다.

그렇다고 관련 연구가 전문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스트리아의 전쟁사가인 마겐하이머(Heinz Magenheimer)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는 1941년 독일의 소련침공이 결과적으로 ‘예방기능(präventive Funktion)’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독일 측이 ‘소련의 대공세’를 인지한 것은 소련침공 몇 주 전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공격에 대한 우려가 독소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⁵⁵⁾ 그밖에 볼코고노프, 카르포프(Владимир Карпов) 다닐로프(Валерий Данилов) 등과 같은 러시아 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는 당시 소련군 총사령관이었던 류코프가 국방인민위원부장인 티모셴코 원수와 함께 1941년 5월 15일 군사적인 이유에서 공격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55) Magenheimer, Heinz, "Neue Erkenntnisse zum 'Unternehmen Barbarossa'", in Österreichische Militärische Zeitschrift 29(1991) 5, pp. 441-445, "Zum deutsch-sowjetischen Krieg 1941. Neue Quellen und Erkenntnisse", in Österreichische Militärische Zeitschrift 32(1994) 1, pp. 51-60.

밝혀냈다. 이 계획은 독일군의 진격을 기정사실로 보고 소련군이 선제공격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⁵⁶⁾ 그러나 스탈린은 베를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 계획의 실행을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히틀러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해준다거나, 소련군이 독일에 앞서 먼저 침공했을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예방전쟁론은 학계에서 고립되어 있지만 보수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치 시대에 야만의 동의어였던 ‘아시아’와 공산주의의 결합인 소련에 대한 적대감을 부각시킴으로써 소위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사를 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미 사라진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독일의 책임과 부담을 털어버리고자 한다. ‘심리·정치적 전쟁수행론’ 역시 예방전쟁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역사학과는 거리가 멀다.

놀테는 극우주의로 돌아서기 전인 1963년에 발표된 자신의 탁월한 저서에서 독소전을 ‘정복, 노예화, 절멸을 위한 끔찍한 전쟁’으로 규정한다.⁵⁷⁾ 그러나 오늘날 놀테를 위시한 극우성향의 학자들과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이 전쟁은 ‘악의 제국’에 대항한 독일 민족의 방어전쟁으로 둔갑하고 있다. 1941년 여름 소련침공 직후 확산되었던 나치의 선전처럼, 소련침공을 ‘불세비즘을 상대로 한 십자군 전쟁’⁵⁸⁾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서구중심의 역사를 또 다시 주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케케묵은 나치의 선전을 부활시켜 제2차 세계대전사를 왜곡하는 이유는 독소전의 역사적

56) Wolkogonow, 앞의 책, p. 548. Карпов, Владимир, "Жуков", in Коммунист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5/1990. Danilow, Walerij, "Hat der Generalstab der Roten Armee einen Präventivkrieg gegen Deutschland vorbereitet?", in Österreichische Militärische Zeitschrift 31(1993) 1, pp. 41-51.

57) Nolte, Ernst, Der Faschismus in seiner Epoche, München, 1963, p. 436.

58) Wette, Wolfram, "Die propagandistische Begleitmusik zum deutschen Überfall auf die Sowjetunion am 22. Juni 1941", in Ueberschär/Wette (Hrg.), 앞의 책, pp. 111-129.

책임을 떨쳐버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부여하는 역사관을 정립하려는 데에 있다. 하스(Gerhart Hass)는 소련침공에 대한 과거 동독 역사서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에서 히틀러가 침공을 결정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대소전과 유대인 학살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⁵⁹⁾

한편 예방전쟁론 진영에서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베커(Fritz Becker)와 마저(Werner Maser)는 스탈린이 1941년 7월 중순 ‘뇌우’라는 작전명으로 독일침공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⁶⁰⁾ 마저에 따르면, 히틀러의 ‘바바로사 작전’은 뇌우에 불과 몇 시간 앞서 수립되었다. 그러나 베커나 마저 모두 이에 대한 정치한 논증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의 책에서 슈코프와 티모셴코가 수립한 선제공격 계획은 언급되지 않으며, 동유럽에서 ‘생활공간’을 확보하려는 히틀러의 의도와 계획 역시 완전히 무시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기존의 관련 연구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4년에 발표된 마저의 최근 연구 역시 과거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⁶¹⁾

이와 반대로 슈미트(Rainer F. Schmidt)는 독소전 개전 직전 스탈린의 계산과 판단이 완전히 오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연구에 따르면, 스탈린은 히틀러의 최측근인 헤스가 영국으로 건너간 뒤 독일과 영국이 소련에 대해 연합하고 이를 통해 히틀러는 동부전선에 집중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슈코프와 티모셴코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선제공격 안을 일축하고 여전히 히틀러를 달래는 정책을 고집했다.⁶²⁾

59) Hass, Gerhart, "Der deutsch-sowjetische Krieg 1941-1945. Zu einigen Legenden über seine Vorgeschichte und den Verlauf der ersten Kriegswochen", in *Zeitschrift für Geschichtswissenschaften* (1991) 7, pp. 647-662.

60) Becker, Fritz, *Im Kampf um Europa. Stalins Schachzüge gegen Deutschland und den Westen* Graz-Stuttgart, 1991. Maser, Werner, *Der Wortbruch. Hitler, Stalin und der Zweite Weltkrieg* München, 1994.

61) Maser, Werner, *Fälschung, Dichtung und Wahrheit über Hitler und Stalin*, München, 2004.

62) Schmidt, Rainer F., "Eine ferfehlte Strategie für alle Fälle. Stalins Taktik und Kalkül im Vorfeld des Unternehmens 'Barbarossa'", in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45(1994), pp. 368-379.

6. 맺 음 말

독일 현대사를 재해석하려는 수정주의적 역사학자들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눈여겨 볼만한 연구 결과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수정주의적 경향을 주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놀테조차도 재해석의 필요성만을 주장할 뿐이지 이렇다할만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1993년에 발표한 저서에서 대소전이 히틀러의 정복욕과 절멸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전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절멸전쟁과 예방전쟁이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⁶³⁾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놀테가 의도하는 바는 진정한 의미의 역사 재해석이 아니라 수정주의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질문만을 던지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도호한 스탈린의 침략의도에 대한 막연한 추측만으로 독일의 소련침공이라는 역사적 부담을 털어버리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참혹한 전쟁에 대한 히틀러와 제3제국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드러난 스탈린의 팽창야욕을 간과하거나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끔찍한 테러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양자는 별개의 문제이다. 스탈린 체제의 폭력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나치의 폭력성을 상대화시키려는 시도는 윤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옳지 못하다. 예방전쟁론에 대한 거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기억을 억압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와 조작에 대한 경고이다.

이와 함께 독일의 소련 침략의 실상을 드러내고 이 전쟁과 홀로코스트 간의 기능적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소모적인 ‘역사가 논쟁’의 재발에 중지

63) Nolte, Ernst, *Streitpunkte. Heutige und künftige Kontroversen um den Nationalsozialismus*, Berlin-Frankfurt, 1993, p. 269.

부를 짚는 것이 필요하다. 수정주의적 역사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사회의 기억이 승전국의 사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역사서술이 ‘정치화’했다고 비판하며 소위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사서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수정주의적 해석에서 명백한 사료 제시나 엄격한 논증 대신 다분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추론만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역사의 정치화’라는 비난은 오히려 수정주의 진영으로 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러시아에 대해 가해자로서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양국 간의 화해를 모색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과거 소련의 역사평가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근거 없는 비난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나치 지도부가 광적으로 매달렸던 나치즘과 이의 등장을 야기한 사회적 뿌리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⁶⁴⁾

(원고투고일 : 2007. 10. 1, 심사완료일 : 2007. 11. 16)

주제어 : 제2차 세계대전, 독소전, 나치즘, 역사가논쟁, ‘예방전쟁’

64) Benz, Wigbert, "NS-Völkermord in der UdSSR und Friedenserziehung im Geschichtsunterricht", in *Karlsruher pädagogische Beiträge* 7(1986) 13/14, pp. 57-69.

<ABSTRACT>

Against the German Revisionist Interpretation as a Preventive War of German-Soviet War in 1941

Yun, Yong-seon

Most of German scholars and people interpret the attack of the Soviet Union by Hitler as a failed attempt to expand the "Lebensraum" for German people, regarding the so-called Ethnic Imperialism as the main cause of the war. Hitler or the Nazis thought that, for the continuation and dominance of the Aryan people, it is absolutely need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race, hence to obtain more than enough Lebensraum for them to thrive. The problem as far as Hitler understood it, was that the Slavic people, one of inferior races on earth, had even more territories than they deserved. He found there the ideological justness of the war against the Soviet Union. Based on the wide and deep studies and researches by most scholars for a long period, this interpretation has been accepted as just and dominant both in the academic and general society of German. But, in 1986, 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comparing the Nazi War with any other aggressive ones of the past, Ernst Nolte, History professor of Free University of Berlin, caused so-called "Historical Dispute" between scholars, and finally made meaningful the conservative attempts to interpret the war as "Präventivkrieg" (a preventive war). After all, now that Stalin had been preparing to invade German and the Western Europe, it was an inevitable choice for Hitler to attack the Soviet Union first, hence a kind of preventive war.

Despite the dominant opinion that the Invasion resulted from the Nazi

ideologies, it is true the discourse as *Präventivkrieg* has been evoking unbelievably great responses in German Society. If we want to understand this unintelligible phenomena we first have to see into the meaning of the Invasion. First of all, The attack means that German one-sidedly broke the Nonaggression Pact of 1938 between two nations, inevitably imposing a severely heavy burden on itself. Second, the war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result of the Second World War, which caused the tremendous after-effect of the division and reunion of German. For those reasons, J. Fest, historian and journalist, declared in a critical biography of Hitler that the invasion must be interpreted as one of the most self-destructive decisions in the German history.

The article begins with analyzing the meaning of *Präventivkrieg*, focusing on the background from which the new theory stems out and also on what it stands based. This also compares and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ld and the new standpoints. The final goal of the article is to inquire into the ideological aspects surrounding the new interpretation of the Invasion, especially trying to analyze and estimate the understructure of *Präventivkrieg* in the light of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s in Germany.

Key Words : World War II, The German-Soviet War, *Hitorikerstreit*, *Präventivkrieg*, National Socialism